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선언 이후 자리를 비운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 사업체 건물 들은 8월인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보스톤글로벌은 현재 많은 매사추세츠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타격 매사추세츠 사업체들 어려움 호소

한인사업체 업주들 업소 폐쇄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
PPP 대출도 모두 바닥,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기미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3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당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5월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는 여름까지도 갈 것이라는 말에 불안해 했다.

2020년 8월에 들어서면서 올 가을이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서둘러 경제 재개에 들어간 서부 및 남부에서는 2차확산으로 타격을 받았다. 아직도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스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아직도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릴 지 불분명하다.

보스톤글로벌은 매사추세츠 소규모 사업체들이 얼마를 더 버텨야 할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줄 파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개 인도식 레스토랑을 소유한 로케이 차우더리씨는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지루한 대 ▶▶6면으로 계속

영주권 시민권 신청료 폭증 수수료 인상 확정

시민권 신청료 81%, 영주권 신청료 최대 85%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7월 31일 시민권 신청료를 81% 폭증 시키는 등 이민과 관련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평균 인상율은 20%다.

이민국은 최종 수수료 인상 법안을 연방관보에 31일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민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했던 수수료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소득 이민자들에게는 이민이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최종안에서도 지난해 제안 수수료와 거의 유사하게 수수료를 폭증시켜 적용했다. 특히 노동허가신청(I-765)의 경우 최종안에서는 \$550로 무려 34%를 올렸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제거하는 영주권 신청서(I-751)도 28%오로 \$760이었다.

두가지 모두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양식으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 과거의 경우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CENTURY 21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평통,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향 교수 초청 강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광복 75돌 기념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 교수 초청 강연회를 8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최한다.

김진향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우리의 할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진향 교수는 자신이 전공했던 북한의 사회, 체제를 경험해보고 싶어 개성공단에 들어가 4년동안 체류하면서 개성공단의 대북 업무를 맡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개성공단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실제적 의미와 그의 경험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연회는 줌을 통한 온라인 강연회인 만큼 한인 누구나 참여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 교수

수 있다.

일시: 8월 14일 (금) 오후 8시 (미동부시간)

Meeting ID: 882 8886 3719

Passcode: BOSTONNUAC

<https://us02web.zoom.us/j/88288863719?pwd=Z3ZHN1-RVVVMxdlV5RjFIQ3p2LzJRQT09>

bostonkorean@hotmail.com

최서경, 평통 문예공모전 미주지역 결선서 우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통이 주최한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에서 보스톤 대표로 출전한 최서경(Sally Choi)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서경 학생은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미주지역 결선 시상식은 8월 13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개최된다. 당초 시상식은 시애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주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악화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최서경 학생은 “나홀로 평양에” 라는 제목의 수필로 보스톤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미주 결선 대상은 <철조망에 피어 오른 진달래 꽃> 수필을 쓴 마이애미 거주 이경욱 학생이 차지했다.

한선우 보스톤평통 회장은 “보스톤 협의회가 입상한 것은 처음”이라며 “문예공모전을 담당 한 준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최서경(Sally Choi)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보스톤 평통은 보스톤지역 공모전 시상식을 6일 오후 7시 45분 줌으로 개최한다.

2020 평화통일문예공모전 시상식

Time: Aug 6, 2020 07:45 PM

<https://us02web.zoom.us/j/89006670936?pwd=eTlacXl0czFUM2QyVDlyZ1dQb1JNQT09>

Meeting ID: 890 0667 0936

Passcode: nuac202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1일 생필품 배포를 끝내고 한인회 임원진과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박찬모 사무총장, 서영애 부회장, 이길한 노인회 이사장, 윤철호 노인회 회장, 김도윤 회계사, 장우석 회장, 박육현 영사, 이충현 부회장

한인회 쌀, 라면 등 생필품 한인들에게 배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1일 우편 소재 한인회관에서 독거노인, 코로나지원금 미 수령자, 일반 사전신청자 및 대리 수령자들에게 약 \$52 상당의 쌀, 김, 라면 생필품 3종을 배포했다.

생필품은 독거노인을 비롯해 사전신청자 등 총 140 가구에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배포됐다.

장우석 회장은 “우리는 단순히 쌀, 김, 라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쌀, 김, 라면을 통해 인간의 정을 나눴다.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건네는 훈훈한 응원의 작은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따뜻한 싹을 내

어 희망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충현 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와 배포자 모두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받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맞서 건 강하게 잘 버티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며 “모든 배포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교통혼잡 피하여, 질서정연하게 오후 4시에 마감 되었다.” 고 말했다.

이날 생필품을 수령한 한 한인은 “더운 여름날, 한인회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나오셔서차 트렁크에 쌀

과 라면, 김을 친절하게 실어 주시는 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운 시국, 미국 땅에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위로와 에너지를 주고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 보스톤코리아 댓글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이날 배포 현장에는 장우석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 한미노인회 윤철호 회장, 총영사관 박육현 영사, 서부지역 대리 수령을 담당 김도윤 회계사, 양수연 YTN 보스톤 통신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한인회는 주정부에 지침에 따라 올해 8.15 체육행사는 최소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코로나 팬데믹동안 퍼블릭 차지 적용 금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맨해탄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적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2개의 금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내렸다.

이민국은 연방지법의 금지 명령이 있는 한 7월 29일부터 새로운 퍼블릭차지 규정 대신 1990년대의 기존 퍼블릭차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27일 트럼프 정부의 퍼블릭차지 규정을 허용했으며 새 퍼블릭차지 규정은 2월 24일부터 적용됐다.

신규 퍼블릭차지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의 사용자로서 영주권 등 심사에서 .소득, 건강, 영어 능력,

나이 등과 함께 고려해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토록 한다는 조처다. 뉴욕 남부 연방 지법의 7월 29일 2가지 명령은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사태가 지속되는 한 국토 안보부가 퍼블릭차지를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미 국무부,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국무부(DOS)가 영사관 행정처리 시 이민자에 대한 퍼블릭차지의 집행을 막고, 비자 신청자에게 민간 건강 보험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트럼프의 건강 관리정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은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화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체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으로 이겨냅니다!
정관장 추가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
행사기간: ~8월 16일까지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10포 증정

신제품 홍삼라떼 15%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6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분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립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박동TV / 이엔트TV / KTV / 우리방송

2020학년도 정기 교사연수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회장 남일)가 주최한 교사 연수회가 지난 7월 25일과 8월 1일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을 대비한 이번 연수회에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 내수아한마을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메인 한글학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중앙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11개교 소속 8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7월 25일 연수 1주차에는 김유리 교육간사의 사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수가 진행됐다. 남일 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2세 교육을 위해 늘 배우며 연구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수고 하심에 감사하며 즐겁게 배워 각 학교 2세교육에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연수 1주차 전체 강연에서 고드칼리지 안성호 교수는 2세들의 초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가을학교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에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 연수회여서 각 학교 교사들은 가을학기를 대비한 줌, 구글 클래스 및 관련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강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8월 1일에 이어진 연수 2주차 연수회는 김소희 협의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했다. 2주차 전체 강연을 맡은 보스톤 장로교회 장성철 목사는 “일방적인 전달교육이 아닌 2세들이 보다 논리적 분석력 판단력 해결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고 전했다.

오인식 신임 이사장은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학교들도 쉽사리 못하는 온라인 교육을 우리 주말 한국학교들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 2세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위기에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주최한 교사연수회가 지난 7월 25일과 8월 1일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한 의지의 한국인’ 임을 보여줬다.” 고 말하고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2세들의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학생 때 만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며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

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국어와 모국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와 전통 및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고 축사를 대신했다.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남일 회장은 교사연수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번 교사연수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연락은 아래의 연락처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Koreanschool.ne@gmail.com, (508) 523-5389, www.naks-ne.org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고대 교우회 온라인 정기모임, 한 시간이 3시간 된 사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 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가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당초 한시간으로 계획했으나 세시간으로 늘어났다. 준비된 모임 주제뿐만 아니라 팬데믹기간 동안 조심할 사항, 앞으로 다가올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모임은 참석의 간편성으로 인해 그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던 교우들과 타주의 교우들도 참석을 하여, 반가움을 나누고 돈독한 교우들간의 우애를 다시 확

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시작은 전체 인원이 쉽게 한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미국과 고려대학교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배우는 기회로 출발했다. 또한 온라인 형식의 모임이 장기 화될 조짐이어서 앞으로의 비대면 교우회의 특성을 살린 건설적인 모임내용과 형식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고대 교우회는 매년 구정과 추석 두번의 정기 모임과 골프대회, 임원진모임 등을 가져왔으나 올해 초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Covid-19사태 악화로 구정 모임은 1월에 취

소됐다.

임원진을 비롯한 소모임을 6월초부터 온라인으로 재개하면서 7월에는 줌으로 팬데믹기간의 어려움을 묻고 교우들간의 안부와 정보도 나누는 기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교우회는 앞으로 추석을 전후해 온라인 모임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모임에 관한 문의는 김명근 회장 (건축공 91, myoungkim@gmail.com) 이나 김민용 총무(컴공 05, mkim2@gsd.harvard.edu)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재단, 한국 교육과정평가원과 MOU 체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 제고와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과 8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이 사장, 김봉섭 전문위원, 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조용기 부원장, 이미경 기획조정본부장, 한혜정 교육과정·교과서본부장, 장경숙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재외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연수·현장조사·컨설팅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 이해 관련 교육자료와 연구정보 교류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에서 재외동포 교육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국외적으로는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주민 매사추세츠 방문시 격리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에서 매사추세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8월 7일 금요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선택하든지 음성반응 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주정부는 4일 트위터를 통해 로드아일랜드의 양성확진율과 10만명당 감염수의 증가로 인해 동북부 8개 면제 주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토요일부터 로드아일랜드 주민은 물론 로드아일랜드를 방문했다 돌아오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7시간내에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위반시 하루 \$500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제한은 매사추세츠 주를 통과해 가는 여행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로드아일랜드 경계선을 넘나들며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드아일랜드에 여행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도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6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코로나바이러스 타격 매사추세츠 사업체들 어려움 호소

▶▶1면에 이어서

기상태에 있다” 고 보스톤글로브에 털어냈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내 소규모 사업체는 사실상 미 경제의 중추다. 일자리 고용 창출에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주내 1백만에 달하는 실업률이 지속되거나 더 증가할 경우 사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라 예측이다.

미 경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동안 미 경제는 GDP -9.5%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6월 미국내 최고실업률인 17.4%를 기록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은 재택근무를 할 여력도 없고 장기화 되는 침체 상황을 버틸 많은 자금도 없다. 지난 3월 갑작스런 영업정지 때처럼 사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급여보조프로그램(PPP)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해준 돈이 떨어지면서 직원 해고를 고려 중이다.

워시사이클론드리(Wash Cycle Laundry)의 개블리얼 맨두아노 대표는 PPP 대출을 사용해 40명의 근로자들을 재고용했는데 현재 매출이 예년의 50%의 수준이어서 6월 중순 20명을 방출했고 나머지 직원들도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워시사이클론드리는 호텔의 린넨이나 향공사의 담요, 그리고 집이나 살롱의 수건을 맡아 세탁해주는 잘 나가던 업체였지만 현재 모든 해당 업체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고 있는 곳들이다.

이곳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맨두아노 대표는 현재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작업복 세탁이나 고객들에게 자전거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즈니스 확장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식, 졸업식 등 행사가 사라지고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손님이 뚝 떨어진 드라이클리너들에게 또다른 경쟁까지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은 레스토랑 등 모든 소규모 사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한인 회계사는 “요즘 한인 사업체들의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사업장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는 사업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들 사업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스톤코리아와 나누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보스톤 소규모사업체 온라인 네트워크 얼라인어블(Alignable)에 따르면 약 36%의 소규모 사업장 소유주들은 8월 말 정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까지 타협을 마무리하기로 동의한 미 의회의 소규모 사업체 지원안을 사업체들은 묵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사업체 폐쇄를 고려하는 한인 사업주들처럼 소규모 사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하기 시작한다면 그도미노 효과는 상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파산 전문변화사 댄콘씨는 “파산신청도 영업을 해서 매출이 있고 현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파산도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고 밝혔다.

사업체들은 적어도 향후 4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버텨야 어느 정도 정상을 찾을 것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매출이 예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는 극도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는 한편 정부 지원 상황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이민 신청	현행수수료	최종수수료	변화폭(%)
I-485(영주권신청)	\$1,140	\$1,130	-\$10 (-1)
I-765(노동허가)	\$410	\$550	\$140(34)
I-131(여행허가)	\$575	\$590	\$15(3)
지문채취료	\$85	N/A	-\$85(-100)
I-485(영주권) 및 지문	\$1,225	\$1,130	-\$105(-9)
I-485와 I-765 및 지문		\$1,680	\$455(37)
I-485와 I-131 및 지문		\$1,720	\$495(40)
I-485, I-765, I-131 및 지문		\$2,270	\$1045(85)

이민 신청	현행수수료	최종안	온라인	변화폭(%)
N-400(시민권신청)	\$640	\$1,170	\$1160	\$530 (83)
I-130(가족이민신청)	\$535	\$560	\$550	\$25(4)
I-140(외국노동자이민)	\$700	\$555		-\$145(-21)
I-360(종교이민)	\$435	\$450		\$15(3)
I-539(신분변경)	\$370	\$400	\$390	\$30(5)
I-129 (전문직H-1B)	\$460	\$555		\$95(21)
I-129H2B(비숙련H-2B)	\$460	\$715		\$255(55)
I-129L(주재원)	\$460	\$805		\$345(75)
I-129O(예체능전문)	\$460	\$705		\$245(53)

영주권 시민권 신청료 폭증, 수수료 인상 확정

▶▶1면에 이어서

영주권 및 신분조정신청(I-485)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신청(I-765)과 여행허가신청(I-131)은 무료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규 이민수수료조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주권신청(I-485)은 \$1130, 노동허가신청(I-765)은 \$550, 여행허가신청(I-131)은 \$590로 조정되며 모두 하나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I-485신청 비용 \$1225(\$1140+85(지문채취))이 세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2270로 무려 \$1045(85%)이나 오른다. 또한 현행 영주권 신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I-485를 접수한 14세 미만의 수수료가 \$750이었지만 이민수수료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청하는 외국노동자이민신청(I-140)은 현행 \$700에서 \$555로 제안안보다 \$10을 올렸다. 가족이민신청(130)은 \$250으로 \$560로, 종교이민신청(I-360)도 \$150으로 \$450로 비교적 소폭 올랐다.

시민권 신청도 대폭 올린다. 귀화를 신청하는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640에

서 \$1170로 올린다. 다만 지문채취료는 현행 \$85에서 \$30로 내린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I-129H1)은 \$100으로 \$555, 비숙련직 취업비자(H-2B) 신청(I-129H2B)은 \$255으로 \$715로 조정된다. 예체능전문가비자(O)신청(I-129O)도 \$245으로 \$705로, 주재원비자(L)신청(I-129L) 무료 \$345으로 \$805로 바뀐다. 다만 신분변경신청(I-539)은 현행 \$370에서 \$400로 소폭 오른다.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연 평균 10억달러에 달하는 기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수료를 평균 20%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난 3월 문을 닫으면서 수수료가 견하지 않자 12억달러 의회 지원을 요청했었다. 지난 6월 4일부터 대면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민국의 운영을 100%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저소득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hsb@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하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자료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문)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하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백악관 민주당의원들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법안 의결기로 합의

2차 경기부양체크, 실업급여 등 민주당과 백악관 합의키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합의하면 무조건 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악관 참모들과 민주당 리더들은 이번 주말까지 실업급여혜택과 세입자 대출 제한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의 최종적인 협상을 타결하고 다음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 실업추가급여혜택과 세입자대출금지 관련 “아주 확실한 (양보안을) 제안했다” 고 밝혔다. 그동안 양측은 계속 서로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손가락질 한 것에 비하면 타협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협상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여했으며 이들 4인은 거의 1주일동안 매일 만나며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타협안을 내지 못하면 단독적인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그는 기자회견에서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진행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펠로시와 슈머 또한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전됐음을 암시했다. 펠로시는 “우리가 (주말까지) 타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며 “시간이 걸리며 좀 더 명확히 해야한다” 고 말했다. 므누신과 슈머는 진전은 이뤄졌지만 아직 (모든 것에)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좌관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므누신은 연방까지 세입자 대출 방지를 연장하는 제안을 했지만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주택 소유자와 렌트비 보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주택관련 합의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4인은 5일과 6일에도 만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측은 시작부터 3.4조달러 안과 1조달러 안의 큰 간격을 좁히기에는 어려웠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1조 달러안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펠로시는 히어로스 법안에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므누신은 히어로스 법안을 그대로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3.4조달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각 사안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 측은 일부 양보를 했고 우리 또한 일부 양보를 했다. 그럼에도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계속 협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어떤 양보를 각각 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백악관 측에서 양보한 것이 민주당에서 양보한 것에 비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은 우편 배달의 지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루이스 드조이 우체국장과의 회의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편지 배달 지연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우편투표 문제를 비롯, 법안 타결시 경기부양지원 체크의 각 가정 전달과 관련된



맥코넬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일괄내면 다음주 초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공화당 상원들이 이번 주말 끝나는 회기를 연장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에 머물기로 강조하면서 도출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안도 없이 각자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1월 선거를 앞둔 상원의원들에게 빈손으로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 자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1월 선거를 앞둔 존 크로닌 의원은 “법안이 해결되지 않은채 지역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라고 묻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분

명히 말하지만 내 생각에 공화당 전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 우리 내부에 의견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지난 3월처럼 큰 지지를 받으며 이번 코로나지원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맥코넬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일괄내면 다음주 초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일부만 찬성해도 민주당 표와 합하면 다수가 되기 때문이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원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는지 우리는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일부 법안에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지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LA에서 민여권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완연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 경제재개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 전문가들 경제재개 2단계 복귀 주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완연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 경제재개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톤글로브는 3일 노스이스턴 대학 감염병학자 새뮤얼 스카피노 교수를 인용 주말 급증한 양성확진율 및 확진자 자료를 고려해 경제 재개를 되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보건부의 8월 3일 발표에 따르면 16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신규사망자는 10명이 발생했다. 지난주 3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증가세에서 일단 한풀 쉼이 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동안은 64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 1주전의 483명, 2주전의 395명을 훌쩍 뛰어넘어 본격적인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지난 14일동안 200 환자가 넘는 경우가 9일 300명이 넘는 경우가 5일이었다.

스카피노 교수는 현재 경제 재개

를 최소한 2단계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내체육관, 카지노, 영화관 박물관 등의 영업정지를 의미한다. 주정부는 7월 6일부터 3단계 경제재개를 시작했었다.

매사추세츠 의료협회장도 올 가을 학교를 예정대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집, 실내식자, 카지노 등의 영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난주 강조했었다.

매사추세츠가 경제 재개한 이후 그동안 주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양성확진율이 뛰기 시작했다. 6월이래 처음으로 2%가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재기됐었다.

배리 블룸 하버드 TH첸 공중보건 대학원 교수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확실하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확진율은 1%인데 현재 2.2%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 통제를 잃을 수 있는 절대적 한계 수치는 5%이다. 개인적으로

확진율이 2.5%에서 3%인 경우 경제 재개를 되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룸 교수는 확산세가 작았을 때 훨씬 사업 폐쇄가 쉽다며 검사와 역학조사를 미세조정하면서 필요시 좀더 세밀화된 사업 종류만 폐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주정부가 경제재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감염병학자들은 경제재개 단계와 관련 확산세 증가, 확진율, 그리고 기타 지수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대규모 모임이 지난주 집단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파티는 재앙의 레시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브는 주정부가 얼마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파티 또는 대형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증가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센서스 집계 마감 9월 말로 단축

당초 10월 말 마감에서 9월 말로 조기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구조사국 (Census Bureau)은 2020년 센서스 집계를 오는 9월 30일로 조기 종료한다.

센서스당국은 당초 10월말까지 연장해 센서스를 집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센서스당국은 갑작스레 태도를 바꿨다. 센서스국은 “집계를 가속화해서 상무부 장관의 명령과 법으로 규정한 12월 3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기 마감 이유를 웹사이트에 설명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당국의 막판 갑작스런 마감일 변경은 헌법에 따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집계해야 한다는 센서스의 정확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서스 자료는 다음 10년동안 해당 지역의 의원 수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 자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미 전체 응답율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도 65.7%의 응답율에 불과한 상태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현장조사요원의 파견도 늦어진 까닭에 앞으로 2달 안에 이민자, 세입자, 소수민족 등 늘 센서스 응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룹들을 모두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아니었다면 센서스는 7월 말로 마감된다. 그러나 지난 4월 센서스부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하에 센서스 집계 마감을 10월 31일로 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센서스부로는 의회에 “센서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31일로 설정된 대통령에 대한 인구집계 마감 보고를 4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센서스 집계 마감일 연장안을 이번 코로나 법안 협상에서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연장 법안을 내놓은 반면 공화당 측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은 대부분 이민자, 소수민족 등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집계에 포함하지 않으려 했던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센서스 조기마감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려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YOUNG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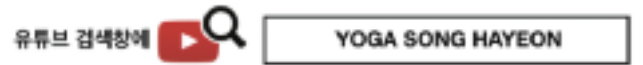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요가송의5분요가



온몸이 유연해지는 모닝요가

‘요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정적인 자세로 바르게 앉아 두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 혹은 몸을 이리저리 꼬고 다리를 어깨 위로 올리는 등 기이한 포즈로 유연성을 자랑(?)하는 요가의 모습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몸이 뻣뻣해 이런 동작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일단 유연하지 못한 사람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걸 지난 10년간의 티칭경험을 통해 또 저 본인 자신의 몸의 변화를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아직’ 유연하지 못한 나의 몸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 요가한다고 생각하고 부담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뻣뻣하게 굳은 몸을 매일 스트레칭해 주신다면 짧게는 1주일만에 확실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침에 일어나자하면 온몸이 시원하게 열리는 굿모닝 요가동작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FRESH START- Best Morning yoga영상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두 동작 외에도 다양한 요가자세를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로 배운 동작은 위리어 변형자세입니다.

양손을 하늘로 올렸던 자세에서 등뒤에서 각지기는 변형된 동작은 타이트한 어깨를 열어주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TEP 1. : 견상자세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뒤 다리는 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STEP 2. : 두 손을 하늘 위로 보낸 후, 팔꿈치를 구부려 뒤에서 각지를 꺼줍니다. (영상을 반드시 참조해주세요)

STEP 3. :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가슴을 하늘을 향해 올려 활짝 펴주세요.

POINT! : 이때 복부를 등쪽으로 수축해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4. :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각지긴 손을 등에서 멀리 보낼

수록 어깨와 가슴이 더 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잠시 머무러주시고 준비되었을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피라미드자세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동작인데요, 이처럼 타이트해진 허벅지 뒤를 수시로 스트레칭해주면 허리통증을 예방,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STEP 1. : 견상자세에서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져가 런지자세를 취해줍니다. 오른 무릎은 사진과 같이 구부리고 뒤에 있는 다리는 펴

주세요.

STEP 2. : 천천히 구부린 앞 무릎을 펴서 허벅지 뒤, 즉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줍니다.

STEP 3. : 가슴은 앞으로, 어깨는 뒤로 보내 등을 곧게 펴주세요.

POINT! :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은 집에 있는 두꺼운 책(요가블럭 대용)을 손 밑에 받쳐주시면 등을 펴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Fresh Start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영상 하단 댓글란을 이용해 꼭 남겨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몸이 뻣뻣해 요가 못해.. 가 아니라 뻣뻣하니까 요가 좀 해야겠다’ 로 생각을 전환시켜 마음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물론 작심삼일이 아닌,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에는 끈기와 의지 또 원동력이 필요한데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서로 격려해가며 같이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매주 저의 유튜브영상과 칼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번주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요가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매스 신규확진자 438명, 6월초 이래 처음

4일 438명, 9명 사망 최근 증가세 뚜렷 주지사, 증가세 계속되면 경제 재개 되돌려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가 또다시 증가 400명대를 넘었다. 6월초 이래 처음이다.

주보건부의 4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확진자는 438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11,03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8,436명이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율은 3일 2.0에서 2.2로 높아졌다. 물론 4월 중순 최고치에 비하면 93% 줄어든 상황이

지만 현재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이 주정부가 경제 재개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일 평균 병원 입원환자 수는 2일 383명에서 378명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대량 유입 병원은 3개 병원이었다. 3일 평균 사망률은 12에서 10으로 줄었다. 이 3개 지수는 첫번째 지수 상승이후 시 간차를 두고 상승하는 지수 이므로

현재 줄고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감염 증가세를 지적하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 재개를 늦추거나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1.7%에서 2%로 단지 약간의 증가세에 있지만 만약 데이터가 나빠지만 조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모임의 수를 줄이거나 일부 사업체의 규정을 좀더 강하게 하거나 하는 것일 것이다. 경제 재개와 재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도움없이 결코 더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다만 이번 확진자 증가세는 최근 주내 양성 확진율이 높은 커뮤니티에 무료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것도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뉴욕시 여행객 검문소 설치 검문 최고 1만불 벌금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높은 35개주 방문객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시는 시내 전철역, 공항, 대형 교각 그리고 터널 등에서 검문소를 설치해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율이 높은 35개 주 여행객들을 불시에 검문한다.

여행객들은 비행기 티켓 및 기차 티켓 구입시나, 호텔 예약시 정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역학 조사팀이 추후 방문자의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20명의 보안 관원은 다른 법집행기관 요원과 함께 검문소에 배치돼 무작위로 차량을 멈추고 검문을 진행하게 된다.

뉴욕시 검사 및 추적 프로그램의 수장 테드 룬은 감염율이 높은 지역에서 도착한 여행객들이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자 제한을 강화시켰다. 격리하는 여행객들에게 뉴욕시는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호텔방까지 제공한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우리는 8주에 걸쳐 감염율을 3%이하로 유지하게 됐다. 우리는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격리 정책은 여행객 및 핫스팟에서 돌아오는 뉴욕 주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단속은 교육과 법준수 독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시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감염 증가세를 지적하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 재개를 늦추거나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www.ksneusa.org (1975~2020 개교 45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20학년도 가을학기 등록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2세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 일정: 2020.9.19 ~ 2021.1.23

☞ 신입생 소집(온라인)- 9월 5일(토)-9월 12일 (각 과정별로 인터뷰/평가 진행)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병아리(9월에 2.5세 이상) 기초1(해님 & 달님반), 봄반(세종 1)→선착순 배정

☑ 학교주소(대면수업):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C/o 오크힐 중학교)

☑ 학교주소(온라인 수업): 각 학급별 온라인 교실에서 수업 진행

☑ 등록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입생)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과정별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음

(1) 오전반(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작문교육(1-4반)
음악교육•사물놀이•종이접기 교실 등 전통/문화교육

(2) 오후반(대면수업 시작 후부터 등록): 미술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 Late Fee \$20

(1) 오전: \$340/1인 *\$620/2 *\$770/3인

(2) 병아리반:\$180 (3) 성인반:\$230

→ 2020 봄학기 재학생의 경우 재학생 크레딧(10%)을 활용해 주세요!

→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 문의 & 교사지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카카오톡 ID: KSNEUSA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모시는 부문: 유아 교육·한글·문화·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20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1)_____ (2)_____ (3)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 여 (Female) 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20년 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병아리반: \$180, 성인반: \$230)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를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편입생 온라인 소집 (인터뷰 & 반편성) 일정: 등록서류가 접수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행정명령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급여세 감면 및 세입자 축출 방지 행정명령 검토

미 의회 코로나바이러스 법안 타결 실패 땀 행정명령 강행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이 타협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 축출 방지 및 급여세 인하 행정명령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이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축출될 것이다. 나는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멈출 것이다” 고 말하고 “행정명령과 관련 많은 권한이 나에게 있으므로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급여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천만명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600 추가급여가 지난주 종료된 것과 맞춰 세입자 축출방지법안도 만료돼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해지면서 백악관은 이 같은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이 히어로스 법안을 제시했을 때 애써 외면한 이후 이제서야 이 같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우선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의 진의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변호사로서 고문정책에 대해 법적 방어를 담당해 악명높은 존 유 법학 교수를 지난 30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존유 교수는 내셔널 리뷰지에 글을 기고해

대법원의 최근 이민자 편을 들어준 것이 백악관의 다른 일방적 행정명령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존 유 교수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다른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대불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다” 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행정명령의 권한을 최대의 범위까지 늘려왔다. 특히 그는 멕시코와 장벽을 세울 때 미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예산을 장벽건설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그 예다.

hsb@bostonkorea.com

동부말뇌염 MA 주 첫 감염 환자 발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동부말뇌염(EEE)에 감염된 첫 환자 사례가 플리머스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주보건부는 3일 실험실 검사 결과 첫 남성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카버와 미들보로 두타운의 위험수준을 최고수준인 위태 상황으로 올렸다.

보건부는 또한 킹스턴, 플립턴, 그리고 로체스터 타운을 높음으로 올렸고, 플리머스 카운티의 브리지워터, 헬리팩스, 레이크빌, 플리머스 그리고 웨어햄, 브리스톨 카운티의 레인햄, 톤튼을 보통 위험수준으로 책정했다.

보건부는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야외활동시 모기 퇴치제를 뿌려야 하며 높음 또는 위태

수준의 커뮤니티에서는 새벽과 해질무렵 야외활동을 삼가해 동부말뇌염모기에 물릴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럴 장관은 “EEE는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이며 공중보건 위협이다. 모든 주민들은 모기 물림을 피해야 한다” 고 말하고 “가장 좋은 보호 방법은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고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며, 새벽과 저녁무렵을 피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12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올해 주정부는 29 모기샘플에서 EEE와 EEE를 전파하는 모기 종류를 발견했다.

hsb@bostonkorea.com



신신마트 배달 서비스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미 공화당, 11월 선거서 백악관 이어 의회까지 '전멸' 위기감

대선 물론 상하원 여론조사서도 고전...상원 다수석도 잃을 가능성, TV토론·코로나 백신·숨은 지지층에 반전 기대감

2020 미 총선 점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11월 선거 때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민주당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의회의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치르지만 3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이 뒤쳐진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일(현지시간) '공화당은 11월 재앙을 두려워한다'는 기사에서 공화당이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상·하원 어느 쪽도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향후 4년을 이끌 대통령 선거 전망부터 밝히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라는 전염병 대유행,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인종차별 반대시위의 삼중고를 겪으며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18년 스페인 독감, 1930년대 대공황,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등 미 역사상 3가지 큰 혼란과 맞먹는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7%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49.1%)에 6.4%포인트 뒤지고 있다. 상원 선거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 100석의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3석이며, 민주당이 자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해 47석이다. 민주당이 3석을 더 가져오면 동률, 4석을 더 얻으면 다수석이 된다.

6년 임기의 상원은 2년마다 약 3분의 1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는데, 올해는 35곳이 선거지역이고 이 중 20곳이 공화당이 차지한 곳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 유지될 경우 11월 선거 후 공화당이 49석으로 줄고 민주당이 51석의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435석의 하원도 현재로서는 민주당 우세다.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435석 모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현재 흐름상 민주당 214석, 공화당 190석, 경합지역 31석으로 분류해 봤다. 민주당 입장에서 경합지역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다수의석인 218석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힐은 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지금 부족, 27명의 현역 불출마로

인한 현역 프리미엄 상실, 대선과 상원 선거에 초점을 맞춘 당의 전략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점점 더 커지는 파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공화당 인사는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우리는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편지를 가지지 않으면 당이 압도적 패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전략이 통했지만 지금은 유권자들이 혼돈을 원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개월이 긴 시간인 데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판세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

표는 "선거전이 바이든과 더 빨리 대비될수록 경쟁은 더 압축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TV토론에서 우위라며 TV토론에 기대를 표시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총무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인 10월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백신이 관세를 반전할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뒤지다 본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들어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숨은 지지층'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역시 있다. 한 공화당 의원은 더힐에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다"고 말했다. jbyoo@yna.co.kr.

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고민정 "엄숙주의 깐 것에 감사" 옹호글...이정미 "이럴 때 기분 더럽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과거 복장도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 친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류 의원을 향한 도넬은 비판까지 나왔다.

한 네티즌은 5일 오전 페이스북 그룹인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 류 의원의 복장 사진을 올리며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나"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일베에서도 류 의원을 향한 혐오·성희롱적 발언이 줄을 이었다.

SNS상의 수위가 도를 넘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옹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뿔 입

던 무슨 상관?'이라는 글을 통해 "21세기에 원피스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이럴 때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듯 "민주주의,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이 맞냐"고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미친xx들, 국회복이 따로 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베와 민주당 지지 그룹에서 동시에 논란이 확산하는 경향을 겨냥, "일-민동맹, 전국의 수컷들이여 단결하라! 그렇게 싸우다가도 성희롱이라는 공동의 대의 앞에선 하나로 뭉친다"고 일갈했다.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3년 재보선에서 당선, 정장이 아닌 흰색 바지와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당시 국회에 '백바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kmk@yna.co.kr



국회 복장논란을 일으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빨간색 원피스(본인은 분홍색 아닌 빨간색이라 말함)와 노란색 마스크로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을 낳았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UG. 7th - AUG. 13th, 2020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키위 BOX \$19.99</p>	<p>Green Cabbage 양배추 LB \$0.7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Korean Melon 황금 싸라기 참외 LB \$1.99</p>	<p>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버섯 PKG./FOR 2\$5 PRODUCT OF KOREA 10.58 OZ./PKG.</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LB \$1.49</p> <p>*** PREMIUM QUALITY</p>
<p>Iceberg Lettuce 양상추 EA./FOR 2\$3</p>	<p>Washington Cherry 워싱턴 체리 LB \$4.99</p>	<p>Packed Garlic 팩마늘 5 CNT/ PKG./FOR 2\$3</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코이모 고구마 LB \$1.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EN/FIRM 14-16 OZ./PKG. \$1.29</p>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등심 스테이크 10 UP/LB \$11.99</p>	<p>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돼지 생목살 소금구이 LB \$6.99</p>
<p>Fresh 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생 돼지갈비 LB \$3.49</p>	<p>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p>
<p>Boneless Whole Smoked Duck 훈제오리 (반마리) HALF/LB \$14.99</p>	<p>Marinated Thinly Sliced Boneless Pork Shoulder Butt for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p>

싱 선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Head-on Shrimps 머리새우 30-40'S/LB \$5.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SUHYUP Frozen Dried Squid 수협 동해안 건조오징어 7.4 OZ./PKG. \$19.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PARANHAE Smoke Anchovy 파란해 훈연멸치 7 OZ./PKG. \$5.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Spanish Octopus 스페인산 냉동 문어 LB \$7.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Belt Fish 냉동 통갈치 LB \$3.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p>
--	--	--	--	--	---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p> <p>KYONG GI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29.99</p>	<p>H MART SMART CARD ONLY</p> <p>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ORN SOUP 2.82 OZ. X 7 EA./BOX \$8.99</p>
<p>H MART SMART CARD ONLY</p> <p>HAI O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재래/파래 도시락김 ORIGINAL/GREEN LAVER 0.15 OZ. X 8 EA./PKG. \$2.99</p>	<p>H MART SMART CARD ONLY</p> <p>HAI 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14.1 OZ. \$5.99</p>

<p>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3.99</p>	<p>GOMPYO Co-brand Wheat Flour 공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 5.5 LB \$3.99</p>	<p>CJ Dasida Soup Stock CJ 다시다 BEEF FLAVORED 2.2 LB \$10.99</p>	<p>HAI OREUM Somen 해오름 막국수 KOREAN STYLE NOODLES 5 LB \$4.99</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ASIAN STYLE STARCH NOODLES 1.5 LB \$2.99</p>
<p>CHORIPDONG Cornish Hen Soup Preparation 초립동이 삼계탕 10 OZ. \$3.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 EA./PKG. \$9.99</p>	<p>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치킨 가라아케 12 OZ. \$5.99</p>	<p>YAMASHO Oden Set 야마쇼 오뎅세트 ASSORTED FISH CAKES 9.7 OZ. \$2.99</p>	<p>HAI 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3.99</p>
<p>ORGANIC FARM Peeled Roasted Organic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간밤 3.52 OZ. 2\$3</p>	<p>ORION Custard Soft Cup Cake 오리온 카스타드 9.73 OZ. (12 PCS)/PKG. \$3.99</p>	<p>HELLO! Electric Multi Kettle 헬로! 무선 스텐 멀티 전기주전자(라면포트) 1.2 L/EA. \$24.99 \$17.99</p>	<p>HELLO! Kitty Soft Roll Tissue 헬로키티 소프트 롤 휴지 30 ROLLS/PKG. \$19.99 \$10</p>	

JINGA
한국에서 엄선된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든든한 한끼 식사

‘진가 한국산 죽’
“JINGA Korean Porridge”

A quick easy meal or snack Made with a secret Korean recipe with ingredients from Korea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표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OUR AGENTS



이 제 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Susan Ahn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넬,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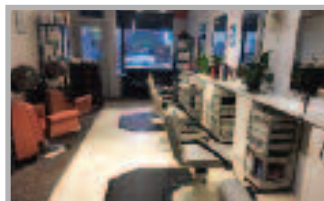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금매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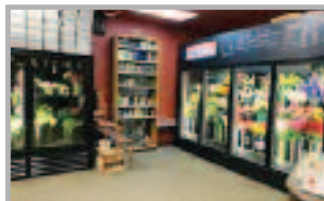
Asking **\$32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급류 강해 안 되겠다" 철수보고 9분 뒤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려

거의 동시에 침몰한 선박들 차례로 휩쓸려...당시 의암댐 초당 1만 방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춘천 의암댐에서 선박 3대가 전복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는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대형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고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집중호우였새체인 6일 오전 11시 34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인근 의암댐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춘천시가 낸 '의암댐 수초섬 사고 경과보고'에 따르면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전달된 것은 오전 10시 45분이다. 이 보고 이후 불과 50여분 만에 선

박 3대가 전복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담당자 이모(32)씨의 보고를 받은 담당 계장은 '출동하지 말고 떠내려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청 소속 행정선(환경감시선)은 이모(69)씨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타고 수초섬으로 출동했다. 옛 중도 배터 선착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수초섬은 급류에 휩쓸려 오전 10시 58분께 송암동까지 떠내려갔고, 이곳에서 수초섬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 담당자 김모(48)씨가 탄 고무보트와 함께 수초섬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유선 보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고박 작업에 실패하자 오전 11시 2분께 춘천시청 환경과에서 경찰 등에 신고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경찰청까지 출동했다. 이어 25분 뒤인 오전 11시 23분께 "의암호 스카이워크에서 작업하겠다"는 보고가 온 지 2분 뒤 "급류가 강해 안 되겠다"는 보고에 따라 철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30분께 철수 과정에서 고무보트가 전복됐고 이를 구조하려다 이씨와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55) 경위가 탑승한 경찰청

의 암댐 상부 500m 지점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곧이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탄 행정선까지 와이어에 걸리면서 선박 3대가 거의 한꺼번에 침몰했다. 침몰한 선박 중 경찰청이 가장 먼저 댐 수문으로 휩쓸렸고 행정선 등이 순차적으로 휩쓸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10여m 높이로 열고 초당 1만 방류 중이였다. 사고 선박 3척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행정선에 타고 있던 근로자 안모(59)씨는 의암댐으

로 휩쓸리기 전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어 선박과 함께 댐 하류로 휩쓸려 실종된 7명 중 행정선에 탑승한 이씨는 사고 지점에서 20km 하류 남이섬 선착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선박에 타고 있던 광모(69)씨는 하루 13km 지점 춘성대교 인근에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경강대교 부근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헬기와 구조정 등을 투입해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jlee@yna.co.kr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용한 플루 손소독제

\$9.99

사용후 손이 거칠어지거나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사용후에도 손이 건조하지 않은 프리미엄 손세정제
천연 녹차 및 알로에 성분, 레몬향 첨가

판매처 : 보스톤코리아, 신신식품

주문 문의 : 617.955.9112




미국 식품 의약국 FDA
식품 FDA등록
2019년 12월 20일
100% 천연 성분 함유

FDA
EPA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통일아카데미 2편>



광복 75돌 기념 온라인 통일강연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것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우리의 할일

일시: 8월 14일 (금) 오후 8시 (미동부시간)
ZOOM ID: 882 8886 3719
Password: BOSTONNUAC

<https://us02web.zoom.us/j/88288863719?pwd=Z3ZHNIQ3p2LzJRQT09>

김진향 이사장 약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 2017. 12 ~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6 ~ 2017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 2014 ~ 2016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2008 ~ 201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 2005 ~ 2008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
- 2004 ~ 2005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 2003 ~ 2004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 2002 ~ 2003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1996 ~ 2000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흥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성안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Theophy) Parish of Boston (Coptic)

주일 미사 (Sunday)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cT>

5월 31일부터 주일 미사는 본당에서 드리고 유튜브
브를 통하여 동시에 스트리밍합니다. 평일미사는
유튜브를 통하여 스트리밍만 합니다. COVID-19
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
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격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5 Year Warranty

바디프렌드 메디컬 R&D 센터는 인류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위해 오감초격차(기술/디자인/품질/서비스/고객만족)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10년 더 건강하게! BTS in BODYFRIEND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구입시
OLD 안마의자 트레이드인 +
LG STYLER or LG 공기청정기 파격 세일!
★ 행사기간: 2020년 7월 30일까지 ★

담채 김치냉장고

FREE SHIPPING
Only valid for deliveries in NY, NJ, PA, MA, MD, and VA

담채® 마망 스탠드 418L	담채® 티탄 스탠드 418L	담채® 화이트 스탠드 330L	미니브이형 100L \$70.87 +Tax/12month	뚜껑형 120L \$66.67 +Tax/12month
			뚜껑형 180L \$95.84 +Tax/12month	뚜껑형 220L \$125.00 +Tax/12month

예약후 방문 하시는 분 \$200 이상 구매시 휴대용 선풍기 무료 증정! 선착순 300명

Appointment Only
예약전화
781.862.6867

HITRONS™
MA Showroom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 월루이자 특별스페셜은 Synchrony Financial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용확인이 필요하며 Synchrony Financial 적격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 통과후 서울 전셋값 더 뛰어...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강동·강남·서초·송파 등이 상승 주도 행정수도' 세종시 아파트값 또 2.77% 급등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개정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 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지

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

대치동 D 공인 대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세 매물이 없어 가격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통과로 4년 안에 전셋값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되고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8억원에 내뱉던 전세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25만원으로 돌리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동작구(0.27%)와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동작구는 흑석·노량진동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등이 올라 지난주(0.21%)보다 더 올랐다.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



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로써 서울의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0.29% 상승해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감정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 대책 후속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는 모두 0.02% 올라 지난주와 상승률이 같았고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강북구(0.05%), 도봉구(0.04%), 노원구(0.04%) 등지 위주로 올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77% 급등하며 지난주(2.95%)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8.4%나 급등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다.

세종시 전셋값도 2.41% 올라 지난주(2.1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셋값 역시 올해 들어 19.15% 급등한 것이다.

세종 도담동 제일풍경채 전용 106.6㎡는 지난달 3일 10억4천300만원(9층)에 거래된 데 이어 27일 11억3천만원에 같은 층이 거래되며 한 달도 안돼 1억원가량 뛰었다. 이 아파트는 2월 8억4천700만원(2층)에서 6월 9억6천900만원(22층), 최근 11억3천만원까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전세도 세종시 새뜸마을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59㎡가 지난달 27일 보증금 6억5천만원(15층)에 거래돼 한달여 전인 6월 25일 5억7천700만원(13층)에 비해 7천300만원 뛰었다

dkkim@yna.co.kr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현실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 시나리오... '강철비2' 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30년 전 냉전 상태 그대로 남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반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평화협정과 핵전쟁 위기라는 소재로 풀어냈다.

전작인 '강철비'와는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 '상호보완적' 속편으로, 1편이 전쟁과 한국의 핵무장 이슈를 다뤘지만, 2편은 북한의 내부 붕괴와 평화적 비핵화를 다뤘다.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북미 평화협정을 중재해온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분)는 어느 날 평화협정 체결을 연기한다는 미국 측의 연락을 받고 센카쿠 지역에서 열리는 미·일 공동 훈련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 는 날, 우여곡절 끝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원산에 한국 대통령과 북한 위원장 조선사(유연석) 그리고 미국 대통령 스무트(앵거스 맥페이든)가 모인다. 한경재의 설득에도 북미 정상은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바로 그때, 북한 호위총국장 박진우(곽도원)가 비핵화에 반대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 정상을 납치해 핵잠수함으로 데려온다. 좁디좁은 함정실에 갇힌 세 정상 사이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담이 시작되고, 대통령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며 군사적 대응에 나선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독도 영유권 등 여러 거대한 담론을 섞어놓은 데다 세 정상인 납치된 잠수함 안과 한국, 미국, 일본을 교차 편집했지만, 관객이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각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을 뚜렷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몰입감을 높였다. 현재 각국 정상들과 비슷한 듯 다른 인물

들 등 현실에 바탕을 둔 허구인 까닭에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좁은 함정실에서 서로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세 정상의 모습은 대부분 긴장모드로 진행되는 영화에서의 주요 코믹 요소다. 공식 회담장에서는 서로 부딪혔던 정상들이 함정실에서는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일종의 우정까지 쌓게 된다. 북한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 간 통역을 맡는 모습은 북미 간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희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독도 근해에서 벌어지는 잠수함 액션 장면은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일등 공신이다. 기만 어뢰와 폭뢰로 공격하거나 공격을 피해 잠수함이 잠항하는 장면 등은 박진감이 넘친다. 태풍이 몰아치는 독도 앞바다, 잠항해 들어갈 때 수평이 바뀌는 부분, 어뢰가 오가는 수중전에서 폭발 충격을 받는 장면 등을 위해 잠수함 세트가 수평을 유지하는 특수 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는 북핵이라는 문제와 강



대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딜레마에 집중한다. 정우성이 연기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한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자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그 누구보다 염원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영화의 결말 부분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들도 호연을 펼친다. 침착함과 강인함을 오가는 한경재를 연기한 정우성과 북한 위원장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유연석의 연기가 빛난다. 특히 북한 핵잠수함 부함장 역을 맡은 신정근은 그 누구보다 큰 존재감으로 영화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dylee@yna.co.kr

8월 9일 - 8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 운수: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껴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4일 길일, 10, 11일 주의.

소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 운수: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널굴째 굴러들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키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범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 운수: 약간의 무리라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 금전: 작은 돈이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

토끼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내 편을 들어주는

● 운수: 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뱀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 운수: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단단히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기라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말띠 | 병 주고 약주는

● 운수: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양띠 | 두 배의 수익을

● 운수: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이 차츰 해결됩니다. 지금 온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람 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원숭이띠 | 앞에서 끌어주고

● 운수: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닭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 운수: 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거나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편찮아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4일 길일, 13, 15일 주의.

개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윤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깨끗이 정리하지나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돼지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후회가 물려줄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4일 길일, 9, 15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적수 없는 '씩쓰리' 음원파워... 솔로곡까지 차트 줄세우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MBC TV '놀면 뭐하니?'로 결성된 이효리, 비, 유재석의 혼성그룹 '씩쓰리'가 강력한 음원 파워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

씩쓰리 음원은 2일 오후 지니뮤직과 빅스 실시간 차트에서 1~6위를 통째로 점령했다. 전날 발매된 세 멤버의 솔로곡을 비롯해 단체곡과 히든트랙 등이 최정상 아이돌 그룹이 컴백할 때처럼 최상위권에 나란히 늘어선 이 이른바 '줄세우기'를 연출했다.

지니뮤직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이효리와 윤미래가 함께 한 '린다'(LINDA)가 1위를 차지하고 비와 마마무의 '신난다'가 2위,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가 3위에 올랐다.

이어 단체 곡 '그 여름을 틀어줘'가 4위, 유재석과 광희의 '두리쥬와'가 5위, 히든트랙인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어쿠스틱 버전이 6위에 차례로 늘어섰다.

24시간 누적 이용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내는 멜론과 플로 차트에서도 지난 달 18일 발매된 '다시 여기 바닷가'가 굳건히 정상을 지키는 가운데 멤버들 솔



로곡이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

'린다'는 오후 3시 기준으로 멜론에서 11위, 플로에서 9위를 차지했다.

최근 씩쓰리는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와 후속곡 '그 여름을 틀어줘', 그리고 멤버별 솔로곡을 3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열풍을 이어왔다.

'다시 여기 바닷가'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가온차트 올해 30주차(지난달 19~25일 기준) 차트에서는

디지털차트,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 차트, BGM차트 정상을 모두 휩쓸며 4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엠넷 '엠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서도 2관왕을 기록했다.

1990년대풍 음악으로 대중의 향수를 자극한 씩쓰리는 세 멤버의 활동 배경 이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kimhyoj@yna.co.kr

'노는 언니' 박세리 "여자 스포츠선수 예능 없어 안타까웠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수 학여행도, 미팅도 못 해보고 운동에 만 매진해온 그녀들이 한바탕 제대로 논다.

오는 4일 방송을 시작하는 E채널 '노는 언니'는 골프선수 박세리를 필두로 펜싱 남현희, 배구 이재영·이다영 자매, 피겨 콕민정, 수영 정유인이 경기장을 잠시 벗어나 '놀아보는' 예능이다.

여성 스포츠선수들이 승부욕은 내

려놓고 버킷리스트에 채워둔 바람들을 하나씩 이뤄가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게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최근 MBC TV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박세리는 3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여자 선수들은 왜 (예능에서)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운동선수들로, 특히 여자 선수로만 구성된 게 특별하고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밝혔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753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소녀의 꿈은 '동물 병원' Dr. Kim으로 이루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다. 10여년 전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로 열린 '나의 꿈말하기 대회'가 있었다. 그때 심사를 맡게 되어 갔었다. 물론, 보스턴 인근에서 30년을 넘게 살고 있으니 아는 지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글짓기 심사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등 심사를 맡을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단도리하는 편이다. 어디에 쓸리지 않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심사를 위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중학교 정도의 아이가 자신이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훌쩍 세월이 지났다. 그 아이의 부모는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기도 하여 가끔 딸아이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물 의사(Animal doctor)가 되려는 전공을 위해 공부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간간히 소식을 들으며 내심 기쁘기도 했었다. 우리 집 세 아이가 훌쩍 커서 30살이 된 것은 생각안

하고 다른 집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각자의 길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

옛그제는 지인들과 함께 그 작은 소녀의 집에 갈 일이 있었다. 마침 그 아이는 훌쩍 자라 멋지고 자랑스러운 숙녀가 되어 있었다. 부모님의 지인들에게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스럽고 보기 좋던지. Dr. Kim, Congratulations, 손을 내밀어 축하해주고 그녀의 곁에 있던 어머니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렸다. 보통의 날에는 동생처럼 편안하게 만나는 사이지만, 딸아이 곁에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송고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였다. 딸과 함께 다정하게 서 있는 어머니가 더욱 귀하고 멋져 보이던 날이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자식을 위해 부모님의 정성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의사 공부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공부 아니던가. 특별히 미국에서 동물 의사(수의사)는 더욱이 그렇다고 들 어왔다. 그 집에 또 다른 Dr. Kim은 물리학

박사이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그가정을 20여년이 넘도록 알고 지내왔다.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고 검소하며 가정에 충실한 부부와 가족들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가는 가족의 풍경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나이쯤에 있는 50대 중반, 60대 초반의 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칭찬과 축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이야기 중에 오래전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자신의 꿈을 솔직하고 확신 있게 표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 부부도 함께 즐겁고 행복했다.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자식의 일로 즐겁고 감사한 일, 이 모든 것들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행복 에너지가 되어 퍼져나간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소중한 에너지가 되었다.

그 소녀와 남동생은 어려서 우리 집 강아지 '티노'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티노 나이가 11월이면 12살이 되어 간다. 그래서 더욱더 그 소녀의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당달아 기쁘고 행복한지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인턴을 다 마치고 동물 병원의 동물 의사(Animal doctor)가 되어 자신의 길을 연 것이다. 내 자식이 동물 의사가 된 것처럼 참으로 기쁘고 대견하고 멋져 보인다. 다시 또 축하해주고 싶다. 곁에 이렇게 멋진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그 꿈을 이뤄낸 작은 소녀의 '그 푸른 꿈'이 다시 오버랩 되어 흐른다.

작은 소녀의 꿈은 '동물 병원' Dr. Kim으로 이루어지고 나는 다시 그 작은 소녀의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섰던 그 아이를 떠올려 본다. 어찌면 이 아이 덕분에 내 행복은 더욱 더 부풀어 오르고 있다. 아마도 석 달 백일은 혼자서 흥얼거리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아, 나는 그 소녀의 나이 때 어떤 꿈을 꾸었을까. 또 그 꿈은 이루긴 이뤘을까. 나도 오늘은 내 빛바랜 어릴 적 꿈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을 시작한다. 하여,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세상 나이 원일곱에 꿈 하나 더 꾸어보지 뭐!! ^^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G-선상의 아리아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동안 클래식 음악 시디를 구입하느라 애쓰적이 있다. 모든 만큼 열심히 들었던 건 아니다. 구입하는 것과 듣는 건 전혀 다른 행위일테니 말이다. 오늘은 인터넷과 신문에서 찾아 읽었던 걸 모았다. 버무렸고, 비벼 넣었다. 아랫글은 인터넷에서 읽은 거다. 그대로 옮긴다.

'1.4 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 축음기와 애청하는 레코드를 몇 장만을 옷과 함께 룩색에 꾸러

놓고 피난열차에 올랐었다. ... (덜컹이는 열차 안에서) 축음기에 레코드를 얹고 바늘을 올려놓았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작곡인 'G선상의 아리아' 였다. 고야하고도 명상적인 바이올린의 멜로디는 눈 운 뒤의 정결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 (곡이) 여운을 남기고 끝났을 때, 서양 음악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은 한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곡을 한번 더 들려 달라." 고 했다. (박용구, 음악과 인생 중에서)

기차가 달리는 철로 주변은 논과 밭사이로 아직 눈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화물칸일 텐데, 매서운 바람이 더욱 들이닥쳤을터. 승객인지 화객인지 모두 굶주림과 피로감에 기진했을 것이다. 바이올린 연주곡 축음기 소리는 따뜻한 열차일 수도 있었을 게다. 들리는 축음기 소리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았을 테고, 더욱 노인의 귀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터.

이 역시 신문에서 읽었다. '70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라고 노인에게 질문했다. 대답이 걸작이었다. "처음 살아보는 나이로 잘 모르겠네요". 노인이 되면 동작은 느릴 수 있을진대, 마음은 느리지 않다는 거다. 완고하게 비칠 수도 있는데, 신중함의 다른 표현 일거라고 덧붙였던 거다.

지난 봄, 한국에선 위안부 할머니가 목청을 높였다. 국회의원이 된 모씨를 향한 일 같이었다. 그의 대답은 서글프다. '연로해

서 기억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라 했다던가. 노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모르는 건 아니다. 기억력도 감성도 이성도 모두 그대로 일 뿐인게다.

이번엔 헤밍웨이이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독백이다. "I may not be as strong as I think, but I know many tricks and I have resolution." 몸은 늙어 힘은 없어도, 삶의 지혜는 늘어간다. 다시 읽는다. '서양 음악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은 한 노인이 부드럽게 청했다. '그 곡을 한번 더 들려 달라.'

G-선상의 아리아를 찾아 들어야겠다. 어디 퀘짜속인가에 바하(바흐)의 시디가 있을 것이다. 이어폰도 아닌, 헤드폰을 끼고 들어야 제맛일 수도 있겠다.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이다 (시편 98:5)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 지방재배치 187만원 154만원~	안면거상술 +목거상 880만원 660만원~			
이마 거상술 495만원 330만원~	코 성형 363만원 264만원~	지방이식 +PRP 330만원 220만원~	가슴성형 660만원 550만원~	지방흡입 220만원 ~	이물질 제거 110만원 ~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성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신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상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플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차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리븐유엔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더위 먹어서 나타나는 증상들, '뇌졸중'일 수 있다?

기온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증상 나타나면 검사 필요

최근 낮 최고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면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지면 일사병이나 일사병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더위로 나타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온열질환이 아니라 뇌졸중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 지현 진료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미니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뇌졸중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미 '미니 뇌졸중(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간과했을 수 있다.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 증상이 잠

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미니 뇌졸중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015년 11만 2520명, 2017년 11만 4953명, 2019년 12만 457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는 고령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60대 환자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환자 23.9%, 50대 환자가 21.2%로 그 뒤를 이었다.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의 손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혈관이 다시 회복되거나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무증상인 사람도 있다. 미니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며,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앞이 보이지 않는 시야 장애,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 증상은 반박 나타났다 사라지 뇌졸중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있는 혈관은 언제든지 또 막힐 수 있기 때

문이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예방을 위한 치료를 해야 한다. 미니 뇌졸중은 뇌 MRI, MRA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뇌졸중과 동일하게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미니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증상을 미리 알고 있다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뇌졸중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 금주도 필수적이다.

휴람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부원장은 "뇌졸중은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편찮아졌다고 간과하면 안된다"라며 "미니 뇌졸중을 겪은 후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 발병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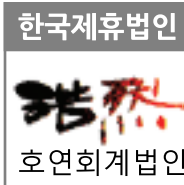
이어 박부원장은 "뇌졸중은 고령이며 기저질환자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로 갑자기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등이 발생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또한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뇌 검진으로 뇌졸중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뇌졸중"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 Kakao ID : huramkorea
- ◎ 미국, 캐나다 무료 (Call Free) : 1-844-DO-HURAM (1-844-364-8726)
-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 이메일 : huram@huram.kr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브오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88) 주식투자 열풍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한국에서 여전히 코로나 19 때문에 ‘집콕’ 생활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책과 부쩍 가까워졌고, 특히 주식투자 관련 도서는 더욱더 뜨겁다고 한다. 동학개미 운동 열풍에 힘입어서 주식 서적 판매량이 무려 180%나 늘었다고 경제신문(집콕 동학개미들 ‘존봉준’ 책 읽으며 투자 열풍, 김슬기 기자, 매경, 6/2/2020)이 발표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식 투자가 한껏 달아오른 것 같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으면 10여년 후 10배 혹은 100배로 늘어날 수 있다. 특정한 회사 주식이 폭락할 수 있기에 20~30개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성을 적게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여러 주식을 보유하기 어려우면 펀드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 혹은 투자 방법은 이론상 그럴 듯하지만,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투자 방법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매우 어렵다. ‘미래에 유망한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라’는 충고는 하늘에 뜬 구름 잡는 말과 비슷하다.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회사 선정을 개인 투자자한테 하라는 것이 실현성이 있을지 매우 의심

스럽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48년 전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턴 맥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다. 미래의 유망한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면 10배 혹은 100배가 된다’라는 생각은 복권에 당첨되면 수익이 수백 배 혹은 수천 배가 된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118년이란 오랜 역사의 J.C. Penny 파산을 시작으로 고급 품목을 취급하던 니만 마커스(1907)와 미국 국민에게 익숙했고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즐겨 입었던 J. Crew(1947), 출장을 갈 때 이용했던 Hertz(1918), 그리고 Pier 1 Imports(1962)도 파산 신청을 했다.

우리는 127년 역사의 GE 회사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1897년 다우존스 지수를 처음 구성했던 12개 회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미 대형 회사의 본

보기였던 유명 GE 회사의 주가가 최근 1991년 1월의 가격과 같다. 30년 전 달걀 1더즌의 가격이 85센트, 소비에트 유니언이 존재했으며 이 당시 다우 존스의 지수는 단 3,000이었을 때다. 개별적인 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도 투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한 회사의 투자는 위험성이 많이 있음으로 20~30개 회사에 분산투자’라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이다. 여러 회사에 투자해도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 주식 대부분도 함께 하락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여러 회사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면 펀드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재정신문인 배런스 신문에서 펀드 수익에 관한 기사(If you still own actively managed stock funds, get ready for some bad news, Daren Fonda, Barrons, Jan. 22, 2020)를 연재했다. 신문 내용은 2019년 1,999개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무려 88%의 펀드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단지 1년 동안의 결과는 아니다.

미국에서 지난 3년과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9%라는 사실이며, 지난 15년의 통계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라는 사실(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WSJ, April 13, 2017)이다. 펀드 매니저가 미래에 유망한 회사만을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노후준비로 주식투자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주식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개별적인 회사 투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만,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손쉽게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11년 동안 주식 시장(S&P 500 Index)은 연평균 약 15%를 창출했다.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개별적인 회사나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3년과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9%라는 사실이며, 지난 15년의 통계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라는 사실(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WSJ, April 13, 2017)이다. 펀드 매니저가 미래에 유망한 회사만을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6세 풍월주風月主 보종공寶宗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보종의 성품과 외모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과 취미와 재능 등, 심지어 그의 성적 정체성과 취향까지도 잘 묘사한 부분이 화랑세기에 전한다.

[보종공의 성품은 청아했고 문장을 좋아했으며... 정이 많았다. 사람들을 위하여 웃고 울었으며, 온화함과 순량함은 마치 부녀와 같았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슬프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픈 것 같았다. 새와 짐승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했다. 한 마리의 벌레나 한 포기 풀도 해친 적이 없었다. 선과 악 이치와 해를 나누지 않았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늘 작은 청려靑驪(달빛이 검푸른 말)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며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을 가리켜 진선공자眞仙公子라고 했다. 얼굴은 관옥冠玉과 같았고 손은 마치 하얀 새싹(白蕙, 백이는 깨끗한 새싹과 같은 손을 말한다)과 같았다.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인물과 산수의 절묘함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호림이 사랑하여 부제로 삼았다. 정이 마치 부부와 같아 스스로 여자가 되어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미실공주가 일찍이 그바라는 바를 물었더니, 보종공이 답하기를 “어머니와 더불어 같이 죽는 것입니다” 했다. 공주가 웃으며 “네가 색은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같이 죽기를 원하니, 또한 무슨 뜻인가?” 했다. 공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도 어머니만 못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했다. 공주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 까닭에 오로지 어머니에게 정을 쏟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손자를 볼 것인가?” 했다. 공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자, 공주가 “너와 같은 사람이 아름답다. 얼굴은 옥과 같이 아름답고 입술은 마치 붉은 연지와 같고 눈은 아리답게 빛나고 말에는 정情的 뿌리가 있는 자이면, 또한 가하지 않겠느냐?” 했다. 공이 말하기를 “정의 뿌리는 갈래가 많고 아리답게 빛나는 것은 속기 쉽고, 붉은 연지와 옥과 같은 아름다움은 몸을 지키는 보배가 아닙니다” 했다.]

미실은 가장 사랑하는 막내아들이 하루 빨리 결혼하여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보종은 여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는 동성애자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가 부제로 14세 풍월주 호림공을 보좌할 때는 그들의 사이가 마치 부부와 같았으며, 그 또한 여자가 되어 섬기지 못함을 한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머니 미실은 그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현강玄剛과 결혼시켰다(현강의 부모는 8세 풍월주 문노와 윤공이다. 윤공

은 거칠부의 딸이다). 그런데 보종은 현강에게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는지 호림공을 불러들여 함께 살았다. 얼마 후 김호림과 현강은 정을 통하였고 딸 계림桂林을 낳았다. 이에 보종은 현강을 호림에게 넘겨주고는 독신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다급해진 미실은 많은 삼궁까지 내걸며 종실의 여자들을 부추겼다. 그러나 아무도 보종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나 양명공주(306)만이 보종의 사랑을 차지하였다. 너무나 행복한 미실은 양명에게 큰 재물을 내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딸 보라寶羅(307)와 보랑寶良이 태어났다. 하지만 곧 보종은 양명과 내사內事에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양명은 김염장과 사통하여 장명을 낳았다. 당시 염장은 보종의 부제로 있었으며 후일 보종을 이어 17세 풍월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날 양명은 길조를 암시하는 꿈을 꾸었다. 이에 양명은 남편 보종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보종의 계책으로 양명공주는 모종과 색사를 하게 되었다.308)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양도가 태어났으며, 양도는 후일 22세 풍월주가 되었다.

306) 양명공주는 선덕여왕의 동부이복자제로서 부모는 진평왕과 보명공주이다. 보명은 처음에 진흥왕의 후궁이었다. 그 당시 태지였던 동륜이 부왕의 후궁과 상관하였으며, 결국 그는 이어지는 월담에 어느날 그만 개에게 물려서 비명횡사하였다. 그리고 579년 동륜의 아

들 백정이 진평왕으로 즉위하면서 보명은 미실과 함께 좌우후左右后로서 진평왕을 색도했다. 그때 양명이 태어났다.

307) 보라공주 설씨는 김춘추의 첫 부인이 되었다. 그들은 딸 고타소를 낳았으며, 고타소는 대야성 성주인 김품석의 아내가 되었다. 642년 백제의 윤충에 의해 대야성이 함락될 때 품석은 처자를 죽이고 자살했다.

308) 모종은 하종의 아들로 미실의 손자이다. 모종은 양명보다 5살이 아래인데 염장과 함께 양명의 사신으로 늘 옆에 있었다. 모종 또한 준수한 용모와 재주가 있어 보종이 그를 총애하였다. 그래서 보종이 그에게 문장과 화법 書法을 가르켰다. 그때 양명도 함께 배웠다. 그러던 어느날 양명은 꿈에 나타난새의 상서로움을 얻어 길조라 여겨 보종에게 말하고 끌어당겼다. 보종은 “길조가 어찌 홀로 나에게만 있느냐?” 며 지리에 놓자말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때 양명에서 묵으로 그림을 그리던 모종이 옷이 목에 더럽혀진 것을 알았다. 이에 공주가 모종을 이끌어 옷을 빨아 주면서 사통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도가 미실의 손자가 아닌 증손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보종은 침실로 가기 전에 모종 몰래 묵으로 모종의 옷을 더럽혀 놓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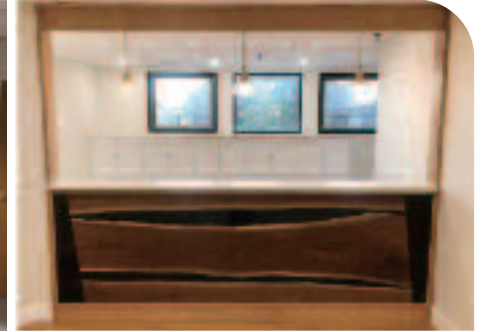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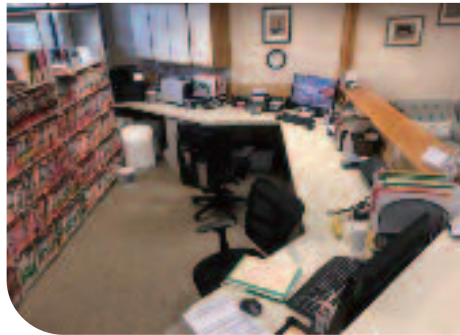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국궁 양궁 연습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